

'방송 장악 기술자' 이동관 OUT



말 그대로 인사 참사의 결정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진작부터 부적합 인사란 지적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또 고집불통, 막무가내 인사를 강행했다. 이동관 지명은 '방송 장악 기술자'를 앞세워 내년 총선 전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 보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검찰도 '방송 장악 배후'로 이동관 지목

이동관이 누구인가. MB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 초대 홍보수석비서관에 이어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까지, 3년 5개월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MBC를, 공영방송을,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 전체를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다. 당시 이동관이 언론 장악 선봉에 섰던 사실은 MB정부 국정원 문건 곳곳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2009년 12월 24일, 국정원이 작성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MBC 등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좌파 프로그램, 좌편향 직원, 출연자를 분류하고, 퇴출시킬 방안이 담겨 있다. 이 자료의 요청자이자 보고자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바로 이동관이었다. 2010년 1월 13일 국정원이 작성한 또 다른 문건,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에는 방송사 선거기획단을 '좌파'로 규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통해 건전 보도를 유도"한다는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이 역시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작성됐고,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이었다.

최근 공개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보고서는, 이동관이 방송 장악 설계자였음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검찰은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0년 3월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대외비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피디·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또 국정원이 생산한 MBC 장악 문건들이 "청와대에 홍보수석실이 신설된 2009년 8월 이후로 홍보수석비서관 이동관일 때 집중되어 있다"면서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조차도 이동관이 방송 장악의 배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학폭 무마·외압 의혹에도 뻔뻔...자질 미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동관이 내놓은 해명은 그의 부적격성만 더 확인시켜줬다. 피해 학생과 화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법한 징계 절차를 따랐고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철저한 왜곡과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다. 최소 4명 이상인 피해자를 1명으로 대표하려는 것부터 시작해, 학폭위 미개최 등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에 대해선 외면했고, 피해자 진술서에 대한 신뢰성을 공격했다. 또 열리지도 않은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자녀가 학기 중에 전학 조치됐다는 허위주장까지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로 규정하더니,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했다"며 겁박까지 하고 나섰다. 아들의 학교폭력 자체도 큰 문제지만, 뻔뻔하게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며 관련 방송마저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려 하는 행태는 장관급 공직자로서의 자격 없음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김승유 당시 하나학원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이, 가해 학부모로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한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 대목은 아연실색하게 한다. 도대체 어느 가해 학부모가 이사장에게 순수한 '문의'를 할 수 있는가. 반면 김승유 이사장은 이동관이 "아들 전학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압이 아니라면 청탁이고, 외압이든 청탁이든 부적절한 처사가 분명하다.

거짓 해명도 모자라, 외압·청탁이 별일 아니라는 뻔뻔함과 특권의식 역시 자질 미달이다.

'언론 장악 안 했다?' 당장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공영방송 탄압에 집착해 왔다. 이동관 지명은 하루빨리 공영방송 장악을 마무리하려는 결정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동관의 뺄려진 언론관과 언론 장악 '전과'는, 이 정권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무기일 것이다. 오로지 '방송장악'이란 목표 아래 그 수많은 결함들은 묵인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지난 1일 첫 출근길에서 이동관은 아무런 반성 없이,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자기 부정의 말을 내뱉었다. 이어 '자신이 과거 언론 장악을 위해 지시한 게 나왔다면, 어떻게 이 자리 설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몰염치의 극치다. 그러면서 '공산당 방송', '기관지', '가짜 뉴스' 운운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해선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권력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언론 장악을 밀어붙이려는 것인가. 상식과 원칙 심지어 법까지 무시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정권의 결말을 벌써 잊은 것인가. 당장 이동관 지명을 철회하고,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몰상식과 불합리, 불통과 막무가내 행보를 계속한다면, 임계점에 달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부에서는 지난 7월 31일부터 이동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1분기 민실위상

보도 [스트레이트] 지금도 실습 나가는 ‘다음 소희’들

서울지부 이재민



▷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과 만났습니다. 스트레이트 ‘지금도 실습 나가는 다음 소희들’ 편을 봤다며 반가워했습니다. ‘다음 소희’를 상영하는 스크린 수가 너무 적었다고 하자, 감독 스스로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영화 관객 수가 상승세였을 때도 스크린 수는 줄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업을 비판하는 영화라서, 스크린에 안 걸어주는 건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기업이 스스로 만든 영화부터 스크린에 걸어야 해서, ‘다음 소희’는 스크린에 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대기업이 아니라서’라는 얘기였습니다. 스크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화면에서도 큰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소희가 더 나오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보도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의혹’ 연속 보도

목포지부 양현승·김진선·박종호·홍경석·노영일



▷ 예산 201-01. 흔히 사무관리비로 불리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공무원들의 사적용도로 쓰였습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에 쓸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적인 물품을 끼워 넣어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매하는 창구는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전남도청 매점이었고, 허위 견적서를 발행해주는 대가는 19%의 수수료였습니다. 올해 전남도청이 편성한 사무관리비만 769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전라남도가 실시한 전수 조사에서는 사실상 전 부서가 사무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이용해온 점이 확인됐습니다. MBC보도를 펴낸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공식 사과와 함께 매점 운영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전라남도는 횡령 혐의가 드러난 50명을 고발과 징계 등 조치했지만, 관리자의 책임은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세금 횡령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 5년 치로 수사 범위를 넓혀 횡령 규모와 적발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의 취재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PD수첩] 인구절벽 -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서울지부 황순규



▷ 저출산 문제는 ‘청년의 삶’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풀릴 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서울로 왔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생존 경쟁을 하고, 그 속에서 사랑, 연애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기성세대로서 미안함. 죄송함들이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며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인가?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어떤 것을 포기해서 청년들한테 넘겨줄 것인가? 이제는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인구절벽 2부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1부가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였다면, 2부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 첫째 출산까지 했지만 둘째는 생각하지 않는 부부 등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을 좀 더 힘을 내고 준비하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

경남지부 김현지



▷ <어른 김장하>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식과 선의, 공동체와 연대에 목말라 있다는 뜻이겠지요. 가난이, 성별이, 장애여부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할 이유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들이겠지요. 마침 올해는 형평운동 100주년입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보람이다.” 100년 전 백정들의 인권 선언이었던 형평사 주지문의 첫 문장입니다. 한 세기를 넘어 아직도 우리에게 절실한 문장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일생을 바쳐 공동체를 돌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은퇴를 축하하며 우리 모두가 김장하 선생의 짐을 나눠 질 차례입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두렵지만,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니까요. 사부작 사부작 꿈지락 꿈지락,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걸어가 다보면 언젠가 평범하고 건강한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함께 걸어가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기 민실위상

보도 [현장검증] 삼각김밥에 컵라면...‘천원의 아침밥’도 빈부 격차

서울지부 남효정, 한지은

▷ 여아가 서로 원조를 주장하고 사업 시행 학교를 더 늘리겠다며 생색은 요란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7년째 딱 1천 원뿐이었습니다. 편차도 심해서 제값 주고도 먹고 싶은 ‘진수성찬’을 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 컵라면에 삼각 김밥이 전부인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선착순에 못 들면 빈속으로 수업에 가는 앓된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도 이후 ‘술 먹을 돈은 있으면서 1천 원 학식까지 바라느냐’, ‘그렇게 더 좋은 대학에 가지 그랬느냐’라는 등의 잔인하고 근거 없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100원, 200원을 아껴 생활비에 보태고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에 여념 없던 학생들이 혹시 상처받았을까 걱정입니다. 그런 헛소리에 아랑곳 않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분에 넘치는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명암을 많이 들춰내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취재와 기사작성에 큰 도움 주신 팩트&이슈팀 구성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보도 광양 고공농성 노동자 강제진압 연속 보도

여수지부 유민호 박찬호 송정혁 정은용

▷ “이렇게 해야 우리도 관심을 줄 것 아닙니까.” 고공농성은 또 다른 고공농성을 불렀습니다. 산업도시 광양.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간부가 철탑 위에서 강제 진압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철탑에 오르다 경찰에 저지당했습니다. 이번 광양 사태는 전국의 이목을 끌었던 사안입니다. 고공농성장에서 벌어진 노동자와 경찰의 공방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진압 과정의 불법성, 원청 포스코와 지자체 광양시의 책임 여부, 고공농성을 벌인 이유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강제진압이 이뤄졌던 5월 31일, 새벽 5시 반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현장에 방송사 카메라, 기자 한 명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사태가 발생했을까. 한 달간 무거운 마음으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관심 두고 책임 있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긴박한 현장에서 마감에 쫓기며 리포트를 제작한 영상 선·후배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PD수첩] 전우원 모자(母子)의 고백,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

서울지부 박종은

▷처음 미디어를 통해 전우원 씨를 접했을 때 충격이 생각납니다. 다소 과격한 폭로 영상을 본 언론인들 모두 ‘이걸 믿을 수 있나?’라는 생각에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이 폭로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 이 폭로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독재자 가족의 최초 사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한 마약 중독자의 허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전두환 씨의 죽음으로 영원히 풀릴 수 없을 것 같던 5.18 피해자들의 응어리가 풀어질 계기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우원 씨를 처음 봤을 때 우려와는 다르게 그에게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투박하고 실수가 많지만 진지하게 그동안 품었던 가족에 대한 의문과 부끄러움을 담담하게 풀어냈고 함께 광주에 내려갔을 때는 그 누구보다 유가족 어머니들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전우원 씨와 동행했던 시간과 또 그 기록이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공감토크, 소통의 고수] <제주 4.3특집> 4.3을 모르는 너에게 등

제주지부 임영진 윤상범

▷ 민실위 선정 좋은프로그램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공감토크, 소통의 고수>는 지역사로서 지역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자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17화를 제작하며 정말 많은 지역민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작하는 저 또한 많은 공감과 감동,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소재부터, 때로는 무겁고 중요한 사회문제까지 다양한 주제 속에서 지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한, 토크와 강연이라는 구성을 한 프로그램에 담아내는 것이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제작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주변의 많은 조언과 도움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보다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에서 보다 더 지역민들과 가깝게, 그들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주 4.5일제 보상 실비 인상 합의

조합은 회사와 격주 4.5일제 보상 실비를 시간당 1만 1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조합과 회사는 지난 두 달 여의 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격주 4.5일제 시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의 효력은 격주 4.5일제가 시작된 7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4.5일제를 누리지 못하고 업무를 할 경우 보상 실비는 기존 평일 실비 9500원보다 16% 높은 시간당 1만 1000원을 보상받게 된다. 한 달 기준으로 둘째, 넷째 금요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8만 8000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휴식 및 자기개발 기회 보장이 핵심

4.5일제는 지난해 단체협약 교섭에서 14기 집행부가 요구한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업무 효율 증대 차원이었다. 하지만 사측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단협으로는 포함되지 못했고, 대신 공동 임금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면서 격주 4.5일제가 임협 조항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고, 업무상 기타 사유로 근무할 경우 실비 보상을 받게 됐다.

관건은 ‘실비 보상’의 개념이었다. 조합은 격주 4.5일제 취지에 따라 ‘휴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은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므로 근무시간 중 ‘자기개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시 말해 평일 실비 9500원만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합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는 평일 실비를 받아들이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9500원에서 10% 인상한 1만 450원을 고수했고, 추후 임금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조합은 물러서지 않고 협상을 요구했고, 긴 줄다리기를 끝에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조합은 이에 그치지 않고, 평일 실비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비 보상에 대한 합의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무엇보다 격주 4.5일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정착하는 것이 우선이다. 4.5일제가 적용된 7월 두 번의 금요일 근무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자기개발 기회를 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제작 부문에서는 전과 다름없이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많았다. 조합은 격주 4.5일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측과 보완책을 더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포인트 연 36만원 인상...복지 확대 노력

조합은 지난 5월 25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구성원 복지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과거 경영상의 이유로 크게 축소됐던 복지 지원을 복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복지기금 지급액은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는 60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복지 혜택은 반토막 난 셈이다. 이에 조합은 개인연금, 복지포인트 인상을 비롯해 주차비 지원 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사측은 올해 비상경영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조합은 노사협 이후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복지카드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연 36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8만원 수준인 복지포인트는 144만원으로 확대됐다.

조합은 지난 단체협상부터 복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서울지부의 경우, 출산 및 입양 축하금을 크게 인상했고, 본인 결혼 등 경조휴가도 확대했다. 창사 기념일 대체휴일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복지기금 역시 일단 복지포인트를 인상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도 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4.5일제 보상 실비 (시간당)

9,500원 → 11,000원

복지 포인트 (연간)

108만원 → 144만원



희비(喜悲) 섞인 4.5일제 공동 협상과 단일 노조 정신 지켜야

지난해 임협 공동 협상에 따른 4.5일제가 본사뿐 아니라 16개 지역 MBC에도 시행됐다. 휴게 시간 확대와 실질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시행 이후 16개 지역 MBC 구성원들은 상실감에 휩싸여 있다. 4.5일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합당한 보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6개 지역 지부의 평일 시간 외 실비는 적게는 4천 원에서, 많게는 8천 50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서울지부는 9천 5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가장 적은 곳과는 무려 2.4배나 차이가 나 같은 시간 외 노동을 하고도 보상을 적게 받는 불균형이 존재해 왔다. 지역사의 열악한 경영 사정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기본급 단일화 체계가 평일 시간 외 실비에서는 비껴 있는 게 암울한 현실이다.

문제는 4.5일제 시행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점이다. 사측은 4.5일제 금요일 오후 4시간을 휴일이 아닌 ‘근무 시간 중 휴식’으로 규정해 일을 하더라도 평일 시간 외 실비와는 별개로 보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적자를 이유로 평일 시간 외 실비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보상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조짐이 실제 감지되고 있다. 이런 조짐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4.5일제를 도입한 공동 임협 정신이 훼손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지역 지부는 사측과의 4.5일제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1만 1000원으로 오른 서울지부와 4.5일제 보상 차이가 더 벌어지는 불균형을 상실감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에 지역 지부장 16명은 조합원의 값진 노동 대가가 저평가되는 일을 방지하고, 단일 노조 단일 기본급 정신을 지키기 위해 서울지부와 동일한 수준의 4.5일제 보상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지역 지부는 4.5일제 정착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사측에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무산되기 일쑤였다. 사측은 본사 경영진과 이 사회의 반대를 이유로 내세웠다. 지역사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노사 합의나 협의 사안마저도 미리 본사에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구조가 원인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이런 일방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본사가 부르짖는 지역사 자율 경영은 헛구호에 불과하고, 지역 노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을 상기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 지부장들의 바람이다.

다시 말하지만, 4.5일제는 단일 노조 단일 임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임금 협상의 결과물이다. 지역도 본사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야말로 단일 대오를 지켜온 MBC 노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엄혹한 시기에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길임을 본사와 지역사가 명심하길 간절히 바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산하 16개 지역 지부장 일동



방통위·감사원의 쌍끝이 탄압



노골적인 방송 장악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달 6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전면적인 사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던 방통위는, 이후 막무가내식 자료 요구에 이어, 오는 4일부터 방문진에 상주하며 검사·감독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가 방문진 실시(현장) 검사·감독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의도 뻔한 방통위 현장 검사·감독

방통위의 공공이는 너무나 분명하다. 방문진을 탈탈 털어 조그만 흠결이라도 발견되면, 아니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방문진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검사·감독 범위도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방문진의 모든 업무를 망라하고 있다. 방통위가 요구한 사전 자료 목록만 봐도 그 불순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일반현황, 방문진 사무집행 등 4가지 큰 항목으로 구분해 요구한 자료는 총 50가지에 이른다. 자료 하나하나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특히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란 항목의 16가지 자료 목록은 말 그대로 가관이다.

MBC 결산승인 관련 자료 일체, MBC 기본운영계획, MBC 경영평가보고서 관련 자료 일체, MBC 중요자산 관련 결의 자료 일체, MBC의 중장기 방송·경영정책 수립 등 예산과 관련해 방문진과 사전협의한 자료 일체 등 MBC 경영에 관한 사실상 모든 자료를 요구했다. 더구나 여기에는 방문진과 MBC가 정부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 MBC 노사문제 관련 검토 내역 등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료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국민감사 관련 자료 일체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실시 검사·감독까지 밀어붙이려는 것은,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내에 어떻게든 방문진을 접수하겠다는 음모다. 이미 구체적인 해임 일정까지 정해 놓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번 검사·감독에 동원된 인력만 14명으로, 방통위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파견 인력 등 통상적 검사·감독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말의 행동대장을 앞세워 막가파식으로 마무리하고, 이동관에게는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는 심산이다.

감사원, 권태선 이사장 소환...해임 강행하나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방문진에 대한 실시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은, 오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방송 탄압의 앞잡이 역할에 충실했던 감사원이라고 해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전례 없는 일이다. 지난 2월 국민감사 착수 결정 이후, 이미 수차례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감사에 이어 방문진 직원들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음에도, 이사장 소환까지 강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감사 사안도 아닌, 감사 방해 등을 이유로 수사 요청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감사원과 방통위가 경쟁하듯 방문진을 겨냥하고 있지만 목적은 하나다. 어떻게 해서든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앉히려는 것이다. 허나 이런 막가파식 무리수의 결말이 어땠는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가 증명한다. 아무리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과 아둔함이 일상화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과오를 반복해 MBC를 장악하려는 권력의 결말은 다르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이후

조합 신규 가입자

서울
지부

이채은, 김예은, 김규리, 윤동욱, 김유진, 서예나, 권혜빈, 김본수(이상 편제), 현선미, 박예은(이상 경영), 류다예(보도), 김형준(기술), 박요셉(영디)

지역
지부

김성곤, 배광우, 양성주, 이흥균, 최승민, 홍현석, 방미정, 성스리(이상 강원영동), 서정욱, 홍지훈, 박수진, 김성국, 고다경(이상 대전), 정호경, 이혜원(이상 제주), 박찬영, 김도현(이상 여수) 서일영, 안준호(이상 목포), 양성호(전주), 강혜련(포항)



전국 17개 지부장들이 엄선한
맛집 100곳! 아래 QR을 따라가세요~



시리즈 강의 1차·연급 제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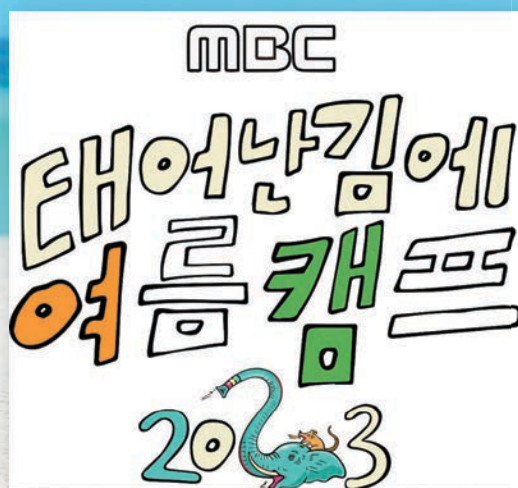
우리와 함께!

“월급 모아 부자되자”
전국 17개 지부 / 소액으로 투자 시작하는 방법

박금희
금융교육전문가 (전 미래에셋 강연PB)
8월 21일(월), 12시 ~ 1시
장소: 골든마우스홀
대상: MBC본부 조합원
신청: 네이버웹스 링크

- 도시락 신청: (11시 30분 배부)
- 지도도서 (박금희 투자법) 신청 * 50명 한정
- 사전 질문

MBC본부



지난 7월 24일부터 사흘 간
진행된 어린이 캠프.
밝은 웃음과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캠프의 열기를
전해 드립니다

